

대행 스님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두가 한마음 촛불 하나에 다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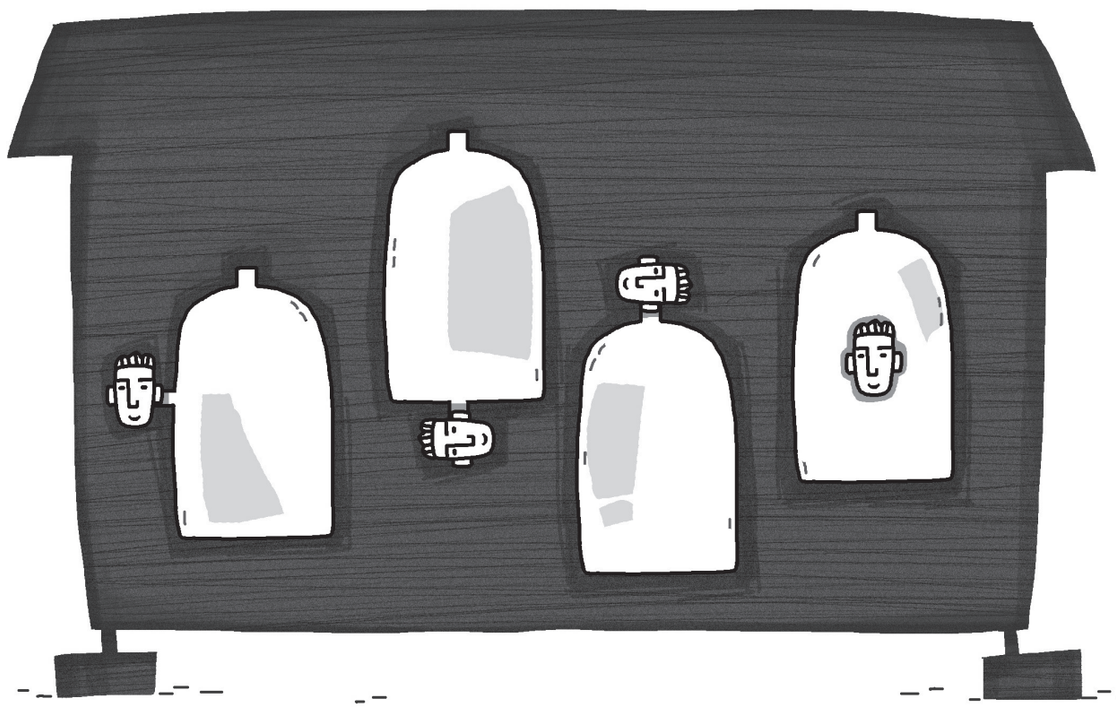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음력으로 친다면 오늘이 벌써 여드레인 거 같습니다. 물론 이 선종 도리에는 올해가 따로 없고 내년 해가 따로 없고 작년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을 한데 합쳐서 현실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 지금 아마 정월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시계추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 우리 인생도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군요.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걷고 있는가를 되돌이켜 한번 생각할 점이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선법 도리에 의해서 우리가 관문을 통과한다 하는 것은, 그 관문이라는 자체도 예전에 성현들이 바로 관법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방편이라고 하지만 그 방편을 우리가 안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중이 귀한 선종 스님한테 묻기를 "부처는 어느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 "바로 네가 부처니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말끝에 그 중이 하는 말이 "보림을 어떻게 하오리까?"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종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그것을 관찰하라."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이것을 잘 관찰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수차적으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말은 달라도 뜻은 같으니까요. (잠시 사이) 그런데 부처가 너라고 하니까 "보림을 어떻게 하리까?" 하는 묻는 말과 더불어 말대답이 "네가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느리라." 하신 이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참나를 알았다면 거기에서 다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주장자를 보지 않고 내 주장자에 맞춰서 산다면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자를 여러분과 같이하면서 '나는 옛날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었고 후일에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작년에 죽은 게 없어서 올해도 죽을 게 없고 내년에도 죽을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 근본 자리에서 그 회답은, 어떠한 말을 했든지 그 뜻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색신이 살고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투로 말을 안 하고 달리, 뜻은 똑같지만 달리 이렇게 말을 자꾸 해서 여러분이 그 뜻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여러분이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보기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놔서 참말 보림을 잘했으면 거기서 싹이 틔어 나올 테니까 보림을 하게 만드느라고 그랬을 거고, 나중에 깨쳐 가지고도 또 잘 나투면서,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안으로 굴려서 보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법도 있고 그러하니 말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어떤 점에 속할까요?

그럼 그건 눌러 두고요, 요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을 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이것이 물에 빠져 본 놈이 물에 빠져 본 놈 사정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봤다고 했을 때에 그때가 공부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오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말고 내 참 여기에 안으로 굴려서 내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습이 일어날 수도 없고 생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주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쳤다 할지라도 항상 상대방을, 내가 굴려서 보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체험하고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다 다시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좀 본다고 하더라도 본단 말을 바깥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접때도 그랬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똥을 누고 가더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는 밥을 먹더라. 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는 잠을 자고 있더라." 이렇게, 참나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뜻으로 그렇게 보게 했더니 요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해. 그러니까 그거를 말없이 쓰되, 말없이 굴리되 그 굴린 자리에 다시 놔라 이거야. 알면 자기가 알았지 남이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도 아는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때가 애들 사춘기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때가!

그래서 그런 걸 급한 일이 있으면 쓰되, 그 썼단 말도 하지 말라 이거야. 또 그걸 보되, 듣되 그것은 도반들끼리나 서로 주고받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도반들끼리 앉아서 공부하기 위해서 해도 좋습니다. "글쎄, 네놈이 말이야, 이거를 봤지 않아?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 아, 고놈도 고놈이더군." 하면서 참 재미있게 문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바로 선신이 되라고 했더니 귀신이 되는 거라!

기껏 배기무가 되라고 묻어 뒀더니 아, 이건 공다리씨 그대로 있는 거라. 아무짝에도 못 쓰지. 심어 봤자야 무도 밑에 안 앉고 공다리만 올라오니깐 뭐, 이파리를 먹을 수가 있나, 씨를 쓸 수가 있나? 그와 같이 아무짝에 못 쓰는 거라. 그러고도 나만 본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지난번에 주장자를 갖다가 받아서 이렇게 법상에 놓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짝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 짝이 나는 거라. 그리고 나라는 아만만 서고 아상만 서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당당하고 도도하되 내 모든 행으로는 겸손하고 언제나, 위를 보면 위 보는 대로 아래를 보면 아래를 보는 대로 항상 엽렵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남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가짐가짐이를 잘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말 한 번, 행 한 번 잘못하고 돌아가면 연쇄적으로 잘못되는 게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역대의 조사들한테도 미칠 뿐 아니라 저 끄트머리로 가서는 석존까지 일컬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저 불자들이 하는 일이 저게 뭐야? 저 행동 좀 봐!" 그런다면…. 불자라고 했습니다. 불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석존이 따로, 그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자 나고 내가 여러분이거든요. 동시에 욕을 먹는 겁니다, 동시에! 누구를 막론해 놓고.

우리가 앞으로 정월 1일, 2일, 3일, 촛불재를 하는데, 그 촛불은 왜 켜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여러분이 본래 아는 거라면 아마 전자에 선조들이 그렇게 방편을,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여러 말씀 안 하고도 될 수 있었지마는,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걸 모르시니까 모든 것이, 염불도 있어야 했고 촛불재도 있어야 했고, 그 옛 법을 다 갖추어야 했고, 지금 현 법도 예전 법도 둘이 아니게 항상 그걸 따라야 하는 것이 예의로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고 해야 합니다. 모르고 남이 하니깐 그냥 따라 해서는 아니 되죠.

보통 우리는 마음을 밝힌다고 합니다.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밝아져 있지 않다면 촛불 자체를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전체의 근본 자체가 바로 마음의 근본이니까.

우리가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마음의 근본이라. 그 근본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수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 조그마

☞ 22면으로 계속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